

아시아의 모바일 혁신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만남

Joonkoo Lee & Hyun-Chin Lee, *Mobile Asia: Capitalisms, Value Chains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n Asia* (SNUPRESS, 2018)를 읽고

서문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I. 들어가며: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사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경제활동, 사회조직, 문화가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한다. 새로운 환경 변화는 기존에 중요한 경계선이었던 국가와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관념과 정체성을 배태하고 있다. 특히 IT 모바일혁명에 따른 융합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세계경제의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역동적인 국면에 와 있다. 그 결과 산업구조에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업의 발전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및 지역별 가치사슬 구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은 서구 주도의 발전경로에 도전하는 새로운 발전모델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모바일혁명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의 역동성을 조망하고 지역별 내외적 연결성과 무역구조 및 기업별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시아의 등장 배경과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모바일 산업의 수렴과 발산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풍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II. 연구문제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가치사슬은 특정 제품의 개발에서 부품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 등에 이르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체로 한 국가나 개별적인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지역 또는 기업으로 분산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활동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로 확장됨에 따라 국제교역방식이나 주요 행위자 간에 가치획득 정도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IT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무역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기업보다 연구개발 또는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IT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조립·제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선진국은 부품조달과 생산부문은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하는 대신, 연구개발·디자인·기술표준화 등의 고(高)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IT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부문에의 참여비중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애플이 가치사슬구조의 최종 생산자로서 파이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데 비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상품기획 및 디자인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플랫폼 등과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낮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판매처임에도 세계 스마트폰산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중소기업체들은 IT산업의 가치사슬구조에 참여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시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기업체들은 IT분야의 패러다임과 GVC의 확산 및 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Mobile Asia*는 글로벌 통신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초(超)국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모바일통신은 국가 경제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모바일통신의 글

로벌 가치사슬은 어떻게 통합되며, 국제 무역네트워크의 유형에 어떻게 수렴 또는 발산하는가? (2) 글로벌 모바일산업에서 가치사슬의 흐름과 역동성은 무엇이며 지역별 분업구조가 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3) 아시아는 모바일통신 산업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으며, 각 기업체들의 지역별 연계 및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아시아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은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되며, 먼저 아시아 모바일통신 산업을 자본주의 다양성과 글로벌 및 지역별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과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세계화 및 지역화 과정에서 아시아의 역사적 등장을 살펴보고 경제·사회·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며, 3장에서 글로벌 가치체계와 국제경제의 역동성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글로벌 모바일산업의 생산·무역·투자의 흐름과 유형에 초점을 두고서 국제지형의 변화과정을 검토한다. 4장에서 가치사슬지도를 중심으로 조직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성격을 진단하며, 5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둘러싼 국제 무역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아시아 모바일통신의 수렴과 발산과정을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분석한다. 6장이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7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발전전략이 어떻게 지역 생산네트워크와 교차되는지를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부록 편에서는 모바일혁명이 정치적 참여와 공적 영역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III. 연구내용

세계화 연구지형에서 지역통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주로 다수의 민족국가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초국가주의의 형성과정을 말하는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을 들 수가 있다. 지역화과정(regionalization)은 국경을 넘어서

지역 간 협력체로서 상향식 접근이 특징적이며, 주로 다국적기업이나 비(非)정부 조직체가 포함된다. 지역통합주의(regional integration)는 지역별 공간에서 정체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구성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에 의해 저자들은 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통합의 제도화된 형식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에는 몇 개의 조직체가 있음에도 유럽연합에서와 같은 잘 구조화된 제도적 틀이 미흡한 상태이다. 오히려 아시아의 지역통합에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은 지역화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주로 투자·생산·무역의 긴밀한 구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 생산네트워크는 아시아 경제를 세계 경제에서 제조업분야의 주요 생산자 및 공급자로서 통합시키는 데 근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단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확장되어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혼합형(hybrid)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모바일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역동적인 성격을 조망하고 가치의 중간지대와 새로운 가치사슬의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아시아의 상승은 글로벌 및 지역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내·외부 연계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무역에 관한 유형분석은 모바일 폰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가별 위상에 따른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이 일반적인 위치라면 베트남은 특화된 위치에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지역 내 분업구조에서 전문성과 분업을 지속함으로써 기존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있다. 넷째, 기업전략과 지역별 가치사슬의 상호작용을 조망한다. 아시아 및 비(非)아시아 다국적기업이 지역가치사슬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지역가치사슬은 기업체와 시장전략의 새로운 형태의 등장을 촉진시킨다.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아시아가 하나의 전체로서 글로벌 모바일통신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및 지역 가치사슬에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수렴 또는 발산되는 발전경로와 기업체의 경영전략이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궤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한 모바일기술의 발전에 따른 구조적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아시아의 발전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 산업화에서 앞섰던 서구와 달리 정보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모바일혁명은 오늘날 국가·기업·사회를 연결하는 초(超)국제체계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스마트 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산업에 초점을 두고서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가치사슬구조가 생산·무역·투자의 유형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아시아 자본주의경제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바일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지형에서의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에 이 책에서는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에서 진화하는 지역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발전경로의 수렴과 발산 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

IV. 성과와 공헌점

관련 선행연구들이 아시아 지역의 통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차별화된 관점을 통해 간극을 메우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문헌에서는 대부분 지역내부의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역통합과정에서 중요한 글로벌 또는 지역 간 힘의 역할을 놓치고 있다. 지역 자체를 자족적인 것으로 다루으로써 외부 환경을 간과하거나 여타 세계와 단절시키는 접근은 비록 글로벌 과정의 효과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지역 간 과정이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게 만든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이나 연결이 반드시 조직 및 제도적 형태의 수렴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화과정이 동질화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역의 복합성과 다양성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사용하여 모바일통신

산업의 변화하는 구조를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어떤 제품의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 또는 이를 넘어서서 사업자 및 노동자가 수행하는 모든 범주의 활동을 포함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틀은 세계경제를 공급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고 이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제도군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네트워크 연계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모바일통신산업에서 해외위탁 및 외주를 통해 범국가 생산체제의 분절화와 분권화가 진행되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은 아시아 지역에 관한 기존 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좀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아시아의 모바일통신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선행연구들이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성과 흐름을 보여주는 데 한계를 갖는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관점과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무역에 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모바일통신 산업구조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국제경제에서 중간위치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각 국가별 또는 기업별 차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적 및 질적 분석과 함께 아시아 경제의 변화하는 위상 및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서 상승하는 경로에 대해 깊은 안목을 보여준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은 단선적이고 단절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국제환경과 국가 및 사회의 함수관계에 따라 발전의 성격과 방향이 달라지는 질적인 전환과정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특정 시점에서의 발전모델 성격에만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발전경로의 성격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와 같이 시간적 가변성을 반영하고 동태성의 관점에서 역사적 궤적을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지역간·행위자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발전경로와 특성을 다양한 성층수준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V. 나가며: 쟁점 및 과제

본 연구의 결과는 저자들의 평소 지론인 ‘아시아는 왜 새로운 아시아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는 과정이며, 세계화 시대에 아시아의 (재)등장이 지역적 또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발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다. 다만 관련 연구지형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 책은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개의 장들은 기존 연구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니면서도 전체적인 틀과 상응하는 논리와 체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 지형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을 파악하고 GVC 구조 변화와 역량 분석 등을 위해서 가치 및 사슬 이론의 관점(Porter, 1985; Gereffi, 1994; Hamel and Prahalad, 1996; Kaplinsky and Morris, 2001)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모바일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좀 더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로 재구성하여 관련 이론과 경험의 적실성을 검토한다면 복합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가 연구내용의 초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지역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발전경로와 자본주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체계적인 비교를 통한 연구결과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가 있다. 나아가 가치사슬구조에서 내포하는 부가가치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편차가 담지하고 있는 모바일산업의 원동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발전방향 및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다층적 접근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모바일혁명의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다양성과 같은 거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근거는 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는 관찰된 구체적 자료에 의해 인과구조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방법론적 전통은 저자들이 언급하듯이 크게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가지 흐름으로 양분될 수가 있다. 비교연구에 관한 두 가지 전통은 경험적인 수준에서 종종 대조적인 연구결과들로 특징지워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IT 발전에 따른 보편성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론적 전통의 긴장과 접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비교연구로서 의미 있는 함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OECD, WTO, UNCTAD 등 국제기구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틀(75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모바일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와 역량평가를 위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고 모바일산업의 유·무형 가치사슬의 단계를 '투입(기획 및 연구개발) - 과정(중간재) - 산출(판매 및 유통)'로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모바일산업의 가치구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면 차별화된 연구로서의 가치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책의 주요 연구목표는 지역 내, 지역 간, 범(汎)지역 수준에서 모바일산업의 사회경제적 차원을 다루는 데 있지만, 저자들도 인지하듯이 대부분 연구 내용이 여전히 경제적 차원에 치중됨으로써 정치 및 사회적 차원에 대한 분석 공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산업 혁명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물질·인적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속화함으로써 무동경쟁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술혁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의 구조적 환경은 기술·경제적 차원과 사회제도 및 문화적 차원별로 변동에 대한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단계별 전환과정과 영역별 연결고리에 대한 분석틀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차 산업을 포함하여 모바일혁명에 따른 고용효과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을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통합시키느냐가 관건이 되며, 역설적으로 선진국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 소비유형의 변화 등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동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기존의 물질적 소비의 개념을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차원에 순차적으로 적응시킬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바일산업을 포함한 IT의 효과는 정보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연구주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제대로 분석할 겨를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현실적 이해관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대부분 관련 연구들은 과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묘사나 당위론적 주장에 그치는 경향이 많으며, 연구결과 자체도 객관적 신뢰성이 결여되어 연구 성과의 실제적

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고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인간 및 사회의 본질과 삶의 질이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상품화과정이 진행되면서 IT의 가치사슬구조의 효용이 높아지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다면, 사회발전의 역설인 것이다. 마치 산업화가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분리를 통해 소외를 배태했듯이, 정보화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를 중립적으로 간주하고 계급분석을 안하는 것도 가치사슬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공학적 힘의 크기가 아니라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충돌인 것이다.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산업의 양면 및 이면적인 효과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술혁신이 서구 선진국에서 발생하여 여타 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연결성을 확산시킨다는 관점은 정보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제도수준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을 강조함으로써 IT의 진보적인 역할을 정당화한다. 실제로 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체 등에 의해 좋은 의도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IT 접근과 사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모바일혁명에 따른 국가내 및 국가 간 불평등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구의 안보 및 성장 전략에 따른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에서 기술 및 자본도입은 주로 국제금융질서의 차관형태에 의존하며, 외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대부분 서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기구의 통제를 받기 마련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모바일산업은 주어진 사회보다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지형의 함수관계를 반영할 때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지형이 확장된다고 하겠다.

